



클래식 음악감상실 '다락'의 '유리시미 II'홀

클래식 불모지 귀한 씨앗... 음악나무에 핀 문화향기

지난해 4월 문을 연 클래식 음악전용감상실 '다락(茶樂)'(광주시 동구 화동)은 클래식 불모지 광주에 떨어진 귀한 씨앗이었다. 1년여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씨앗에서는 잎이 나고, 꽃이 피었다.

클래식 강좌에는 수강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인터넷 카페(cafe.daum.net/darakclassic) 회원도 800여명에 이른다. 하우스 콘서트, 유명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관람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다락'은 김스 스킨 이사장을 지낸 김명선 씨가 사재를 털어 문을 연 공간으로 두개의 감상실을 운영하고 있다. 60평 규모로 80석의 좌석을 갖춘 '맥킨토시홀'은 1억원에 달하는 맥킨토시 XRT 26 스피커와 B&O 파워앰프, 1080P HD영상을 갖추고 있다. 국내에 몇대 없는 자디사사의 유리시미 II, 마크 레빈슨을 갖춘 '유리시미 II홀'은 예약제로 운영중이다.

◇**무료 영상음악회 개최**
다락은 클래식 강좌 '다락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월~목요일(오후 8시) '클래식과 함께 하는 유럽 여행'이라는 타이틀로 진행중인 '다

■음악감상실 '다락' 1년

클래식 강좌·음악 감상회·하우스 콘서트 등 다채

해외 아티스트 공연 원정 관람... 20일 기념음악회

락 아카데미'는 클래식 음악사의 주요 작곡가와 작품을 콘서트 실황으로 해석하는 프로그램이다.

김명선 다락 감상실 대표와 정미영 실장이 강의를 맡아 진행하며 특히 수요일에는 오후 시간대(2시30분)에 강좌를 열고 있다. 강좌는 기본 12주 과정(회비 7만원·커피와 먹거리 제공)으로 진행되며 오는 23일에는 4기 아카데미가 개강한다. 매 강좌마다 1회 수강도 가능하다.

다양한 주제의 무료 강좌도 눈길을 끈다. '누구나 알아야 할 클래식 영상 음악 감상회'(토요일 오후 8시) 클래식·크로스오버 음악을 들려주는 '금요영상음악감상회'가 대표적이다. 4월말부터는 광주시교육청의 요청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

상으로 한 방과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수요일에는 주제가 있는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클래식 매니아 안철씨가 진행하는 '모차르트와 함께 하는 수요일 감상회'(첫주), 바이올리니스트 김찬경씨가 맡은 '김찬경의 문화 향기'(셋째주), 피아니스트 조현영과 함께하는 피아노 토크'(둘째 주 수요일) 등이다. 11월에는 슈만의 '피아노협주곡 가단조'를 직접 연주하며 조씨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모든 프로그램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힐러리 한·프랑크푸르트 교향악단 관람**
다락은 하우스 콘서트도 운영하고 있다. 오는 20일에는 1주년 기념 두번째 하우스콘서트를 연다. 조현영·윤소희씨가 베토벤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1번과 4번',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를 연주하는 무대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와인 파티도 연다. 다락은 하우스 콘서트에 출연한 연주자도 모집중이다.

해의 유명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현장을 찾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시작했다. 지역에서 전시회 투어는 기획된 적이 많지만 클래식 음악 투어는 이번이 처음이다.

첫 투어는 오는 6월10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내한공연으로 힐러리 한이 협연하는 무대다. 1차 신청 마감일인 5월22일 2차 참가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6월 6일에는 다락에서 이날 연주 레퍼토리를 맡은 '교향곡 5번'과 멘델스존의 '바이올린협주곡'을 '예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다락은 또 거장 마리스 안소스가 지휘봉을 잡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내한 공연(11월20일) 관람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명선 대표는 "공연을 앞둔 연주자들에게 리허설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은 리허설 현장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226-0101, 010-7172-2778. /김미은기자 mekim@

한국무용가 노해진씨 고향서 감동무대

'남도소리 상설무대' 초청... 내일 문예회관에서 공연

한국무용가 노해진(40)씨가 고향 무대에 선다.

광주 출신으로 동아여고를 졸업한 노씨는 중앙대 무용학과와 동대학원을 거쳐 올해 단국대에서 무용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특히 한국 무용 대표 단체인 국수호 디딤무용단의 대표를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문예회관이 진행하는 '남도소리 상설무대'에 초청된 노씨는 '노해진의 춤'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한다. 1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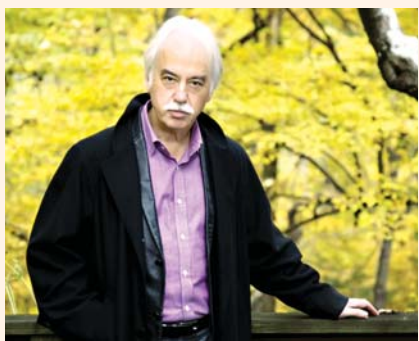
특히 이번 무대 공연작 중 노씨가 안무한 '춘설'은 최근 열렸던 핵안보정상회의 기념 공연 당시 국립무용단이 무대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

노씨는 이번 공연에서 입춤과 사자가를 비롯해 '공연과 리뷰' 선정, '올해의 전통재구성 안무상' 수상작인 '부채산조-아가'를 선보인다.

또 디딤무용단은 '아침연가', '땅의 혼' 등 노씨가 안무한 창작춤들 무대에 올린다. 모든 작품은 라이브 음악을 배경으로 진행되며 김광호 청주시립무용단장 등



내로라하는 무용수들이 무대를 빛낸다. 노씨는 "역사적 소재에 관심이 많아 단종, 허난설헌을 소재로 한 작품을 안무하기도 했다"며 "기회가 닿는다면 오월 광주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062-613-837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늘, 드뷔시와 에드워드 아우어의 만남

유스퀘어문화관이 유명 클래식 아티스트를 초청하는 '2012 스페셜리스트' 시리즈 연주를 시작한다.

첫번째 무대는 30여년간 인디애나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들을 길러 온 피아니

스트 에드워드 아우어다. 10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연주 레퍼토리는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은 드뷔시의 음악들이다. '판화 L.100', '전주곡 제2권 L.123' 외에 아내인 피아니

스트 문정화씨와 함께 '백과 흑으로 L.134'를 연주한다.

쇼팽 스페셜리스트로 '제2의 루빈스타인'이라는 평을 받는 아우어 교수는 쇼팽 국제콩쿠르 등에서 수상했으며 LA필하모니 등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티켓 가격 전석 3만 3000원. 문의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세계아리랑축전, 아리랑 판타지로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성대)은 9일 '세계아리랑축전'과 주제공연 '아리랑'(가칭)의 명칭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 두 부문 모두 최우수상 당선작 없이 세계아리랑축전은 이충훈씨의 '광주세계아리랑축전'을, 주제공연은 문준우 씨의 '아리랑 판타지'를 우수상으로 선정하는 등

총 10편의 입상작을 발표했다. 심사는 세계아리랑축전 추진위원회(위원장 고은) 위원 17명의 서면심사로 진행됐다.

재단은 이번 공모결과를 토대로 김명곤 총감독 주제하는 제작단 전체회의와 추진위원의 자문을 거쳐 명칭 활용여부를 최종결정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1년

www.geumsoojang.com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0,000원 /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보약, 흥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